

## 수유 형태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이 애 란\* · 박 문 희\*\*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초산모의 아기 양육 과업중 가장 중요한 초점은 수유이다. 수유는 신생아의 신체적 생존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는 수유 방법에 따라 영아의 구순기적 만족이나 신뢰감이 형성되며 수유시의 모아 관계를 통하여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애착이 발달되어 장래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장과 최, 1990) 아기는 생계와 안정을 위해 엄마에게 의존하고 엄마는 아기와의 친근감이라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유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수유 시간이 지체 되면 아기는 배가 고파서, 엄마는 유방 팽만의 불편감으로 인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런 특별한 공생적 관계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생활에서 가장 여유로운 때를 모유 수유 시간이라고 한다(김, 1993).

인공 영양에 비하여 모유 수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알레르기에 대한 저항, 감염에 대한 저항과 정서적,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수유 방법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사실이 광범위하게 증명되었다(김혜숙, 1993 ; 김미원 외, 1993 ; 김미예 외, 1994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978).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산모가 매우 감소하여 권(1993)의

연구에 의하면 모유 수유를 실시한 산모가 28.4%, 모유와 우유를 섞어 먹인 산모가 41.3%이며, 모유 수유 기간은 모유 수유 엄마의 47.3%가 12주 미만이었다고 했는데, 이는 1980년대에는 모유 수유율이 64%이었다가 1989년 대중 매체에 의한 분유 광고로 인하여 52.2%로 하강하였으나 최근에는 55.9%로 상승한 미국의 엄마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Hoekelman, 1992).

따라서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모유 수유 실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유 수유의 성공 여부는 어머니의 희망, 모유 수유에서 오는 만족, 가능한 지지체계에 달려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모유 수유에 따른 신생아와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 모아 애착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 1990 ; 김, 1993 ; 이, 1992 ; 한, 1991). 모아 애착은 어머니와 신생아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발달되어지며, 영아는 수동적이지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출생 당시부터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므로(Tulman, 1981) 자신의 어머니로부터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머니는 이러한 신생아의 행동을 지각하고 그에 반응함으로써 모아 관계가 형성되며, 어머니의 최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은 모자 관계의 연속적인 맥락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이, 1986). 즉 아동은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고 있는 개체로서 영아 초기의 모아 상호 작용은 아동의 건강을 결정하는 기초

\* 원광보건전문대학 간호학과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가 된다. 더우기 의존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 영아에게는 생존이나 생존의 질이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 의하여 좌우 된다(Tuley, 1983). 그러므로 영아 초기에 긍정적인 모아 상호 작용이 유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모유 수유, 인공 영양과 혼합 영양등의 수유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차이,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간호사가 초산모의 모유 수유 실천을 증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 2) 수유 방법에 따라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 (1) 수유 방법에 따라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다.
  - (2) 수유 방법에 따라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비교한다.
  - (3) 수유 방법에 따라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지각 변화를 비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I시와 C시에 소재한 2개 종합 병원에서 건강한 첫째 아기를 분만하고 산후 합병증이 없는 초산모 1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위의 초산모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2-3 일은 각각 산과와 신생아실로 아기와 분리되어 있어 어머니가 직접 아기를 만지거나 젖을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아기와 함께 퇴원을 한 후에는 산후 조리를 하면서 아기를 보살피고 수유를 실시할 수 있었다.

자료는 1994년 5월 1일에서 10월 30일까지 수집되었다. 분만 후 2-3일에는 연구자와 보조자가 직접 산모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그 자리에서 답하도록 하여 187부가 수집되었고, 분만 1개월에는 전화로 수유 상황과 아기의 건강 상태를 질문하였고 같은 설문지를 우편으로 우송하도록 하여 101부(54%)가 회수되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1963년 Broussard가 개발한 신생아 감지 평가 도구를 이자형(1986)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신생아 지각 사정 도구(Neonatal Perception Inventory)를 사용 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9이었다. 총 문항은 30문항으로, 일반 아기에 대한 산모의 지각 15문항,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이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써 최고 점수는 75점, 최저 점수는 15점으로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가 아기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아동과의 적절한 상호 작용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자기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차이(일반 신생아에 대한 지각-자기 신생아에 대한 지각)를 산출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즉 +(positive) 점수가 되면 자기의 아기를 긍정적으로, -(negative) 점수 또는 동점이 되면 자기의 아기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 하였으며, t-test, paired t-test, Anova 등으로 수유 방법에 따른 지각의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지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연령 분포를 보면 20세 이하가 4명(4%), 21-25세가 24명(23.8%), 26-30세가 62명(61.4%), 31세 이상이 11명(10.8%)이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산모가 73명(72.3%),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가 28명(27.7%)이었으며, 학력은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5명(5%),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51명(50.5%),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5명(44.5%) 이었다.

수유 형태를 보면 분만후 2-3일은 100%가 분유 수유를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종합 병원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산과와 신생아실로 분리되어 있어 어머니가 아기를 직접 만지거나 보살피며 수유

〈표 1-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실수	%
연 령	20세 이하	4	4.0
	21-25세	24	23.8
	26-30세	62	61.4
	31세 이상	11	10.8
직 업	무	73	72.3
	유	28	27.7
학 령	중 졸	5	5.0
	고 졸	51	50.5
	대 졸	45	44.5
수유 형태 (분만 후 2-3일)	모 유	0	0
	분 유	101	100.0
	혼 합	0	0
수유 형태 (분만 후 1개월)	모 유	30	29.7
	분 유	31	30.7
	혼 합	40	39.6

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신생아는 전적으로 간호사에 의해서 보살펴지며 분유 수유가 실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만 1개월에는 아기와 엄마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의 의사에 따라 수유 방법이 결정 되었는데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30명(29.7%),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31명(30.7%), 모유와 분유를 함께 실시한 혼합 영양이 40명(39.6%) 이었다.

〈표 1-1〉

분만 2-3일에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을 연령에 따라서 비교하면,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20세 이하는 45.25점, 31세 이상의 초산모는 40.18점으로 연령이 어릴 수록 일반적으로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 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을 어렵게 지각하고 있는 듯하나 유의 한 차이는 없다.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는 20세 이하 초산모는 33.75점, 21-25세의 초산모는 39.87점, 26-30세의 초산모는 39.50점, 31세 이상의 초산모는 36.81점으로 오히려 21-30세 사이의 초산모의 점수가 높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분만 1개월에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20세 이하 초산모는 41.00점, 31세 이상 초산모는 39.09점으로 차이가 없다.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를 보면 20세 이하 초산모는 40.50점, 31세 이상 초산모는 36.18점으로 연령이 어린 초산모가 자기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아기를 돌보는 것을 어렵게 지각하는 듯하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일반적으로 분만 2-3일보다 분만 후 1개월의 지각 점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직접 돌보아 주면서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아기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지며 불안감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세 이하의 초산모는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분만 2-3일에는 33.75점이었다가 분만 1개월에는 40.50점으로 높아져 있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어머니는 분만 초기에는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다가 막상 아기를 보살피는 과정 동안에 오히려 아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며 아기를 보살피는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표 1-2〉

〈표 1-2〉 초산모의 연령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구 분	연 령	실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분만 후 2-3일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20세 이하	4	45.25	3.86	1.35	0.26
	21-25세	24	43.62	5.75		
	26-30세	62	42.77	5.23		
	31세 이상	11	40.18	5.43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20세 이하	4	33.75	9.06	1.26	0.29
	21-25세	24	39.87	7.96		
	26-30세	62	39.50	6.88		
	31세 이상	11	36.81	6.36		
분만 후 1개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20세 이하	4	41.00	3.55	0.47	0.69
	21-25세	24	41.04	6.27		
	26-30세	62	41.33	5.69		
	31세 이상	11	39.09	5.18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20세 이하	4	40.50	2.88	0.75	0.52
	21-25세	24	37.12	7.24		
	26-30세	62	38.64	7.03		
	31세 이상	11	36.18	4.93		

분만 후 2-3일에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직업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산모는 43.09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는 42.00점이고,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산모가 39.13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가 38.89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분만 후 1개월에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산모는 41.71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는 39.1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P < 0.05) 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가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오히려 아기를 보살피는 것을 어렵지 않

게 느낀다는 의미가 있다.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산모가 38.13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가 37.9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표 1-3>.

<표 1-3> 초산모의 직업 유무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구 분	직업유무	실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분만 후 2-3일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무	73	43.09	5.51	0.96	0.34
	유	28	42.00	4.99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무	73	39.13	7.20	0.15	0.88
	유	28	38.89	7.37		
분만 후 1개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무	73	41.71	5.64	2.06	0.04**
	유	28	39.17	5.50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무	73	38.13	6.93	0.12	0.90
	유	28	37.96	6.47		

\*\*P<0.05

분만 후 2-3일에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45.00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42.88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42.44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각 점수가 낮아지나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는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3.20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38.29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39.4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표 1-4> 초산모의 학력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구 분	학력	실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분만 후 2-3일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중졸	5	45.00	6.67	0.51	0.59
	고졸	51	42.88	5.85		
	대졸	45	42.44	4.68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중졸	5	43.20	9.03	1.19	0.30
	고졸	51	38.29	7.20		
	대졸	45	39.48	7.00		
분만 후 1개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중졸	5	41.60	6.10	0.03	0.96
	고졸	51	41.05	5.74		
	대졸	45	40.88	5.71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중졸	5	39.00	6.67	0.39	0.67
	고졸	51	38.58	6.68		
	대졸	45	37.42	6.98		

분만 후 1개월에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1.60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1.05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가 40.88점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지각 점수가 낮아지나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도 중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39.00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38.58점, 대학교를 졸업한 초산모는 37.42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표 1-4>

2. 수유 방법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및 지각 변화

분만 2-3일에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44.23점,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42.58점,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가 41.87점으로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점수가 높으며, 자기 아기에 대한 점수를 보면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40.23점,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37.22점,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가 39.62점으로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점수가 역시 높은데 유의한 차이는 없다.

분만 후 1개월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머니가 직접 아기를 보살피며, 수유를 실시한 상태에서의 지각 점수인데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는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41.26점,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41.38

<표 2-1> 수유 방법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구 분	수유형태	실수	평균	표준편차	F-값	P
분만 후 2-3일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모유	30	44.23	5.21	1.71	0.18
	분유	31	42.58	5.20		
	혼합	40	41.87	5.52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모유	30	40.23	6.99	1.53	0.22
	분유	31	37.22	6.37		
	혼합	40	39.62	7.86		
분만 후 1개월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모유	30	41.26	6.43	0.24	0.78
	분유	31	41.38	5.51		
	혼합	40	40.52	5.33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모유	30	37.50	6.90	0.15	0.85
	분유	31	38.35	6.55		
	혼합	40	38.32	6.99		

점,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가 40.52점이며,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를 보면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37.50점,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가 38.35점,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가 38.32점으로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점수가 높게 나왔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 2-1>

분만 후 2-3일과 분만 후 1개월의 초산모의 수유 방법에 따른 초산모의 지각의 변화를 보면,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일반 아기에 대해서 분만 2-3일에는 44.23점이었으나 분만 1개월에는 41.26점으로 매우 낮아져 있고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 < 0.05$ ), 자기 아기에 대해서도 분만 2-3일에는 40.23점에서 분만 1개월에는 37.50점으로 낮아져 있고 유의한 차이가 있다( $P < 0.1$ ). 이는 분만 2-3일에는 신생아의 능력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보살피는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각하다가 퇴원 후 1달 동안 아기를 보살피며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동안에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며 아기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은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경우에는 분만 2-3일에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42.58점이었다가 분만 1개월에는 41.38점으로 낮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으며,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분만 2-3일에는 37.22점이었다가 분만 1개월에는 오히려 38.35점으로 증가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이는 분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는 분만 2-3일경에는 아기를 직접 보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막연하게 지각하다가 정작 아기를 보살피며 아기에 수유를 실시하는 상태에서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점점 더 어려움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혼합 영양, 즉 모유 수유와 분유 수유를 함께 실시하는 초산모는 분만 2-3일에는 일반 아기에 대해서 41.87점, 분만 1개월에는 40.42점으로 지각 점수가 낮아져 있으며, 자기 아기에 대해서도 분만 2-3일에는 39.62점, 분만 1개월에는 38.32점으로 점수가 낮아지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 2-2>

<표 2-2> 수유 방법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변화

구 분		실수	평균	표준편차	t-값	P	
모유 수유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분만 2-3일	30	44.23	5.21	2.24	0.03**
		분만 1개월	30	41.26	6.43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분만 2-3일	30	40.23	6.99	1.93	0.06*
		분만 1개월	30	37.50	6.90		
분유 수유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분만 2-3일	31	42.58	5.20	0.91	0.36
		분만 1개월	31	41.38	5.51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분만 2-3일	31	37.22	6.37	-0.78	0.44
		분만 1개월	31	38.35	6.55		
혼합 영양	일반 아기에 대한 지각	분만 2-3일	40	41.87	5.52	1.35	0.18
		분만 1개월	40	40.52	5.34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분만 2-3일	40	39.62	7.86	1.10	0.27
		분만 1개월	40	38.32	7.00		

\* $P < 0.1$  \*\* $P < 0.05$

긍정-긍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53%,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55%,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초산모는 40%로써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가 다른 초산모에 비해서 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부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20%, 분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32%,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초산모가 20%로써 분유 수유를 실시하

는 초산모는 분만 2-3일에는 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초산모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부정-긍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10%,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10% 이나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는 25%로써,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는 분만 초기에는 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아기를 직접 보살피는 과정동안에는 긍

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정-부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17%,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10%,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는 15%의 분포를 보이는데,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와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는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에 비해서 분만 초기에 아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러한 평가는 분만 1개월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3>

<표 2-3> 수유 방법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지각 변화

구 분	분만 2-3일-분만 1개월	실수	%
모유 수유	긍정-긍정	16	53
	긍정-부정	6	20
	부정-긍정	3	10
	부정-부정	5	17
분유 수유	긍정-긍정	17	55
	긍정-부정	10	32
	부정-긍정	3	10
	부정-부정	1	3
혼합 영양	긍정-긍정	16	40
	긍정-부정	8	20
	부정-긍정	10	25
	부정-부정	6	15

#### IV. 논 의

#####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본 연구에서는 분만 2-3일과 분만 1개월에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정도와 지각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는데,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직업 유무, 교육 정도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박과 변 : 1984, 변 : 1994).

연령에 따른 지각 정도를 비교하면 분만 2-3일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일반 아기에 대해서나 자기 아기에 대해서 연령이 어릴수록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행위를 어려울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또한 20세 이하 초산모는 자기 아기에 대한 지각 점수가 분만 2-3일에는 33.75점이었다가 분만 1개월에는

40.50점으로 오히려 점수가 높아졌는데 이는 다른 초산모에 비해서 아기를 돌보는 과정 동안에 아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며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Klaus와 Kennel (1970)에 의하면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나 38세 이상의 노 초산부에게는 모성 행위에 문제가 있어 어머니로서의 태도 및 지식이 부족하였다고 하였는데, 최근의 초산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일찍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초산모의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를 비교하면 분만 2-3일에는 일반 아기나 자기 아기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분만 1개월에는 일반 아기에 대해서 직업이 없는 초산모의 지각 점수가 41.71점, 직업 있는 초산모는 39.17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P < 0.05$ ), 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초산모가 다른 아기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 아기에 대해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지각 점수는 낮아지는데 이는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엄마와 아기가 각각 산과와 신생아 실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 분만 2-3일의 지각 점수보다 분만 1개월의 지각 점수가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아기를 직접 돌보아 주면서 아기의 능력을 발견하여 높이 평가하게 되고 아기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 지면서 불안감이 감소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조(1991)는 신생아와의 접촉 시간이 길수록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수정하거나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신생아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 적극기인 산후 2-3일경에 1시간 이상 모아 접촉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하였다. 즉 분만 초기의 접촉이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형성과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모자 동실의 개념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2. 수유 방법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분만 2-3일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대상자 전원이 분유 수유를 실시하였는데, 분만 1개월에는 모유 수유가 29.7%, 분유 수유가 30.7%,

모유와 분유를 함께 실시하는 혼합 영양이 39.6% 이었다. 이는 모유 수유가 26.1%, 분유 수유가 52.2%, 혼합 영양이 21.7%라고 발표한 변(1994)의 연구, 그리고 모유 수유가 28.4%, 혼합 영양이 41.3%라고 한 권(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다만 모유 수유 엄마의 47.3%가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기간이 12주 미만이었다라는 권(1993)의 결과를 참고할 때 자료를 수집한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서 모유 수유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1992)의 산후 4개월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유 수유 유무에 따라 모성 역할 획득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모성 역할 긴장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으나 Mercer와 Stainton(1984)에 의하면 모유 수유를 하는 어머니들은 분만 이라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모유 수유를 하기로 선택하는 어머니가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상이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만 2-3일과 분만 1개월 시점에서 수유 형태에 따라 초산모의 아기에게 대한 지각의 정도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분만 2-3일에는 일반아기에게 대해서 모유 수유 초산모가 44.23점, 분유 수유 초산모가 42.58점, 혼합 영양 초산모가 41.87점이며, 자기 아기에게 대해서는 모유 수유 초산모가 40.23점, 분유 수유 초산모가 37.22점,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가 39.62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지각 점수가 다른 초산모들에 비해서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가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돌봄의 행위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분만 1개월에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어머니가 아기를 직접 보살피며 수유를 실시한 상태에서의 지각 점수인데, 일반 아기에게 대해서 모유 수유 초산모는 41.26점, 분유 수유 초산모는 41.38점, 혼합 영양 초산모는 40.52점이고, 자기 아기에게 대해서는 모유 수유 초산모가 40.52점, 분유 수유 초산모가 38.35점, 혼합 영양 초산모는 38.32점으로써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수유 형태에 따라 분만 2-3일과 분만 1개월 후의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의 변화를 비교하면, 모유 수유 초산모는 분만 2-3일에는 일반 아기에게 대해서 44.23점이었으나 분만 1개월에는 41.26점으로 낮아져 있고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P < 0.05$ ), 자기 아기에게 대해서도 분만 2-3일에는 40.23점, 분만 1개월에는 37.50점으로 낮아져 있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P < 0.1$ ) 이는 모

유 수유를 하는 과정 동안에 아기와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아기를 보살피는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유 수유를 실시했던 초산모는 일반 아기에게 대해서 분만 2-3일에는 42.58점이다가 분만 1개월에는 41.38점으로 점수가 낮아졌으나, 자기 아기에게 대해서는 분만 2-3일에는 37.22점이었다가 분만 1개월에는 38.35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오히려 지각 점수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분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는 분만 초기에 비해서 아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며 아기를 돌보는 과정 동안에 어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었음을 뜻한다. 즉 모유 수유 초산모는 분만 초기 수유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기에게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심각하였으나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 동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 반면 분유 수유를 하는 초산모의 경우는 분만 초기에는 막연하게 아기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1개월 동안 아기를 보살피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임이 밝혀졌다. Rutledge와 Pridham(1987)의 분만 6주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수유 방법이 어머니의 능력에 대한 지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어머니의 경우 분유 수유나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어머니에 비해서 아기를 보살피는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 유능하다고 지각하고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김(1990)은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과 모아 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에서 영아에 대한 감정, 태도, 인지 등 지각이 긍정적인 경우 더 민감한 상호작용 양상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즉 엄마가 아기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상호 계획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박(1984)의 연구에서는 분만 2일과 분만 1개월에 모두 긍정적인 지각을 보인 산모가 49.6%이었으며, 긍정-부정적 지각을 보인 산모는 21.2%이었으며 이 경우는 분만 초기에 미처 느끼지 못하였던 문제들이 신생아를 돌보며 차츰 야기되어 간호의 중재를 필요로 하는 군이라고 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분만 초기에는 부정적인 지각을 보이다가 분만 1개월에는 긍정적으로 변한 산모는 19.5%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초기에 느꼈던 문제들이 차츰 해결되어 갈등이 감소된 군으로 스스로 적응을 잘해 나가는 어머니로 분류하였고, 부정-부정적인 지각을 보이는 산모는 9.7%로써 이 경우에는 다른 군에 비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정서적 위험이 예측되므로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모자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 시

키고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시키도록 하는 간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유 형태에 따라 긍정, 부정적 지각을 비교하였는데, 긍정-긍정적 군을 보면 모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53%, 분유 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는 55%, 혼합 영양을 실시한 초산모는 40%로써 혼합 영양을 실시한 군의 분포가 가장 낮았으며, 긍정-부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 초산모가 20%, 분유 수유 초산모가 32%, 혼합 영양 초산모가 20%로써 분유 수유 초산모는 분만 초기에 비해서 1개월 동안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지각을 갖게된 엄마들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부정-긍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 초산모가 10%, 분유 수유 초산모가 10%, 혼합 영양 초산모는 25%로써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초산모의 경우 분만 2-3일에는 부정적이다가 분만 1개월에 긍정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부정적 군에서는 모유 수유 초산모가 17%, 분유 수유 초산모가 3%, 혼합 영양 초산모가 15%인데 이는 모유 수유와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초산모가 분만 초기에 아기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정적인 지각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오(1994)가 모유 수유의 저해 요인으로 모유 수유의 필요성을 못 느낌, 유즙 부족, 유두 균열 및 동통, 아기의 거부등을 제시하며, 모유 수유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이나 불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므로 특히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모유 수유를 실시함으로써 분만 초기에 비해서 수유를 실시하는 과정동안에 어머니는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며, 엄마와 아기와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긍정적인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들이 분유나 혼합 영양을 실시하는 초산모에 비해서 분만 초기에 신생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을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되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간호사들은 모유 수유 방법이나 유방 관리에 대해서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여 초산모가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분만 2-3일과 분만 1개월된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수유 방법에 따라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

각 정도와 지각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분만 2-3일에는 병원에서 엄마와 아기가 각각 산과와 신생아실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아기의 100%에 게 분유 수유가 실시되었으나, 분만 1개월에는 모유 수유가 29.7%, 분유 수유가 30.7%, 혼합 영양이 39.6%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01명의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여 1994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분만 2-3일에 1차, 분만 1개월에 2차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Broussard(1963)에 의해서 개발되고 이자형(1986)에 의해서 보완된 신생아 지각 사정 도구(Neonatal Percept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산모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1) 초산모의 연령이 어릴 수록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보살피는 것을 어렵게 지각하는 경향은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 2) 초산모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신생아에 대한 지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 3) 초산모의 학력이 낮을 수록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을 어렵게 지각하는 경향은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2. 수유 방법에 따라서 분만 후 2-3일과 분만 후 1개월에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에 변화가 있었다.
  - 1) 모유 수유 초산모는 분만 2-3일에는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보살피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지각하다가 분만 1개월에는 아기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 아지며 아기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P < 0.05$ ,  $P < 0.1$ )
  - 2) 분유 수유 초산모는 분만 2-3일에는 자기 아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아기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분만 1개월에는 아기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아기를 보살피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3) 모유 수유 초산모는 긍정-긍정적 군이 53%, 긍정-부정적 군이 20%, 부정-긍정적 군이 10%, 부정-부정적 군이 17%이었다. 분유 수유 초산모는 긍정-긍정적 군이 55%, 긍정-부정적 군이 32%, 부정-긍정적 군이 10%, 부정-부정적 군이 3% 이었다.

## 참 고 문 헌

- 권숙희 외(1993). 모유 수유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 김미예 외(1994). 아동간호학, 수문사.
- 김미원 외(1993). 모유 영양아와 인공 영양아의 이환율 비교, 모자간호학회지, 3(2), 166-171.
- 김소라 외(1993). 초산모의 산육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 작용 양상, 이화간호학회지, 26, 22-37.
- 김태임(1990).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 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 상호 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1993). 모유의 신비, 에드텍.
- 박영숙과 변희재(1984). 신생아에 대한 초산모의 감지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4(1), 50-59.
- 변수자 외(1994). 수유 형태와 모유 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52-67.
- 오현이 외(1994).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68-79.
- 이자형(1986).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사정 도구, 대한간호학회지, 16(3), 67-77.
- 이혜경(1992). 산육기 초산모의 모성 역할 획득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경(1992). Differences in Maternal Role Attainment for Breast-feeding and Bottle-feeding Mothers at Four Months after Delivery, 모자간호학회지, 4(1), 33-40.
- 장순복(1990). 모유 수유에 따른 초산모와 신생아의 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문집, 제 13집, 30-40.
- 조수현, 이영숙(1991). 어머니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과 애착 행위와의 관계, 전남의대 잡지, 28(1), 85-97.
- 한경자(1991). 한국인 영아 초기 수유시 모아 상호 작용 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1(1), 89-116.

-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1978). Breast Feeding, Pediatrics, 62(4), 591-601.
- Hoekelman, R.A.(1992). Highs and Lows in Breast Feeding Rates, Pediatric Annuals, 21(10), 615-617.
- Klaus, M.H. & Kennel, J.H.(1970). Mothers Separated from their Newborn Infant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7(4), 1015-1037.
- Mercer, R.T. & Stainton, M.C.(1984). Perceptions of Birth Experience : A Cross-Cultural Comparison, Health Care Woman Internat, 5(1-3), 29-35.
- Rutledge, D.L. & Pridham, K.F.(1987). Postpartum Mothers' Perception of Competence for Infant Care, JOGNN, May / June, 185-194.
- Tuley, M.A.(1983). A Meta Analysis of Informing Mothers Con Odors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2(3), 147-153.

- Abstract -

###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s related to Feeding Methods

Lee, Ae Ran\* · Park, Mun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s and compare the changes of their perceptions related to feeding methods between the time I (post-partum 2nd-3rd day) and the time II (post-partum 1st month).

At the time I, bottle-feeding method was 100% because mothers were separated from their babies. At the time II, the methods of feeding were breast-feeding(29.7%), bottle-feeding(30.7%),

\* Dep. of Nursing, Wonkwang Public health Junior College.

\*\* Dep.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ixed feeding(39.6%).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1 primipara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to October 1994, using the Neonatal Perception Inventory devised by Broussard(1963) and added by Lee Ja Hyurg(198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newborn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 1) The younger tended to estimate that newborns were less capable, and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babies.
  - 2) There was no difference of mother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according to having a job or not.
  - 3) The lower educated tended to estimate that newborns were less capable, and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babies.
2. There were some changes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their babies related to feeding

methods between the time I (post-partum 2nd-3rd day) and the time II (post-partum 1st month).

- 1) At the time I, Breast-feeding mothers estimated that newborns were less capable, and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re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babies. But they showed positive perceptions at the time II ( $P < 0.05$ ,  $p < 0.1$ ).
- 2) At the time I, Bottle-feeding mothers tended to estimate that newborns were more capable, and perceived that it would be more easy for them to take care of babies. But they showed negative perceptions at the time II.
- 3) For breast-feeding mothers, positive-positive group was 53%, positive-negative group was 20%, negative-positive group was 10%, negative-negative group was 17%.  
For bottle-feeding mothers, positive-positive group was 55%, positive-negative group was 32%, negative-positive group was 10%, negative-negative group was 3%.